



출세주의자였지만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화가 고야

## 박재현 작가

누구나 성공하고 싶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성공을 향해 질주하기보다는 가진 것이 없거나 운이 없다면 빠르게 체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포기할 줄 모르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고야는 성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화가다. 고야는 평생 4명의 군주를 섬길 정도로 탁월한 출세주의자다. 하지만 고야는 성공했다고 해서 민중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30여 년 동안 유럽의 혁명과 외세의 침입과 내전을 겪어야했던 고야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희생자들의 고통을 극명하게 폭로했다.

고야가 전쟁의 공포를 규탄한 작품이 〈1808년 5월 3일〉다. 이 작품은 왕이 나폴레옹 정권에 대항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의뢰했다.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을 휩쓸면서 스페인은 페닌슐라 전쟁(1808~1814)에 휘말리게 된다. 프랑스 군대가 명목상으로는 포르투갈에 대항하는 스페인의 연합국 자격으로 들어온 것이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형 조제프를 스페인의 새로운 왕으로 임명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1808년 5월 2일 프랑스 점령에 마드리드 시민들은 거대한 봉기를 일으키고 다음날 반란을 진압한 프랑스 군대는 봉기에 가담한 마드리드 시민 가담자들을 처형했다.

1808년 5월 3일에 있었던 마드리드 시민들의 처형 장면을 담은 이 작품에서 나폴레옹 포병들은 오늘날 문콜로이라고 불리는 도시 외곽에서 봉기에 가담한 중요 인물들을 처형했다.

이 사건이 있는 발생 한 6년 후, 전쟁이 끝나 갈 무렵 고야는 처참했던 그날을 두 개의 그림을 남긴다. 이 작품은 두 번째 작품으로서 구성은 미구엘 감보리노가 1813년에 제작한 판화를 토대로 삼았다.

바닥에 흥건하게 피가 고여 있는 땅 위로 처형된 세 구의 시체가 서로 겹쳐져 있고 그 뒤로 흰 셔츠를 입은 남자가 양팔을 벌린 채 프랑스 군대 총구 앞에서 있고 프랑스 군대의 총구 모두 그를 향해 있다.

이 작품의 중심은 흰 셔츠를 입은 남자다.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남자의 자세는 인류의 죄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연상시키고 있다.

흰 셔츠의 남자 옆으로 몇몇의 시민들은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 프랑스 군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과 달리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며 똑같은 자세로 서 있다. 고야는 군인의 모습을 통해 무고함과 잔인함을 표현했다.

배경의 3/1을 차지하고 있는 검은색 하늘과 불빛 하나 없는 도시 풍경은 참혹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고야는 전쟁의 영웅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실제의 사건은 낮에 일어났지만 고야는 배경을 밤으로 택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고야는 재능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사라고자 민병대원으로 활동했으며 10여 년 간 나폴레옹 침략에 대항하는 스페인 투쟁을 그림으로 남겼다. 고야는 억압받는 인간성의 저항의 외침을 붓을 매개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고야는 격동의 시대를 겪으면서 어리석은 인간성을 고발하는 충동에 휩싸인다. 그는 귀머거리의 집이라는 전원주택을 구입한 후 담에 그림을 그린 다음 그 위에다 블랙 페인팅으로 알려진 그림들을 덮어 씌웠다. 고야의 1820~1823년 블랙 페인팅 시기의 주제는 신화나 종교 그리고 미신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야의 블랙페인팅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이 〈제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다. 이 작품은 신화의 내용 중 가장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사투르누스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라고 불린다. 사투르누스는 자기 혼자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아버지우라노스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사투르누스는 자식에게 쫓겨나 왕위를 빼앗기게 될 거라는 신탁을 듣는다. 사투르누스는 자식에게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내 레이나와 사이에 난 자식들을 모조리 잡아먹는다. 이에 불만을 품은 레이나가 막내 제우스만큼은 사투르누스 몰래 빼돌린다. 성장한 제우스는 사투르누스와 싸움에서 이겨 아버지가 잡아먹은 다섯 형제들을 토해내게 하고 사투르누스는 저승세계에 가두어 버렸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몸집의 사투르누스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다. 사투르누스의 양손에 매달려 있는 아이는 아버지에게 먹혀 머리와 왼쪽 팔은 사라지고 없으며 흘러나온 피가 새어나오고 있다.

이 작품에서 회색 머리카락과 구부정한 자세는 사투르누스가 노인을 나타내고 있지만 근육질의 몸은 강한 힘을 상징하고 있으며 부릅뜬 눈과 아이를 움켜쥔 손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크게 벌린 입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비장함을 나타낸다. 또한 사투르누스의 몸과 대조적으로 가지런히 뻗어 있는 아이의 자세는 거대한 힘에 저항하지 못하는 인간을 암시한다.

프란시스코 데 고야(1746~1828)는 어린 시절 금은세공업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화가의 길을 걷기로 마음을 먹는다. 자신의 재능을 과신하고 있던 고야는 마드리드에서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위해 몇 번 시험을 보지만 낙방하고 만다.

고야는 마드리드보다는 보다 더 넓은 곳에서 자신의 열정을 발산하기에 결심하고 이탈리아로 향한다. 고야는 이탈리아 미술 아카데미에 합격하자마자 마드리드로 돌아온다.

마드리드에서 고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 왕실에서 사용하는 태피스트리(직물) 밑그림 작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태피스트리 밑그림으로 발휘하는 것에 불만을 품는다. 그는 민족주의 단체

인 ‘일루스트라도스(계몽된 사람들)’에 가입한다. 일루스트라도스에서 고야는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인맥을 넓혀나간다. 또한 모임은 고야로 하여금 독자적인 사고와 인간 생활을 탐구하게 만든다.

단체에 가입해 원활하게 활동하면서도 고야는 궁정화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태피스트리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싫었지만 왕실 장식용품이라면 정성을 다했다. 결국 고야의 밑그림을 완성된 태피스트리를 본 스페인 국왕부처가 그에게 초상화를 주문한다. 고야는 초상화를 완벽하게 소화해낸다. 그는 궁정화가가 되기 위해 귀족들의 취향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며 그것을 화폭에 그대로 표현했던 것이다.

고야는 공간과 빛에 대한 감각, 전형적인 인물, 의상의 사실적 묘사, 원숙한 구도, 뛰어난 색채감으로 스페인 상류층의 주목을 받으면서 1789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궁정화가로 임명되었다.

고야가 궁정화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유는 예술의 자유는 경제적 자립에 달려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궁정화가가 되면 기본적인 생활비는 물론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초상화 주문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부를 축적하기에 아주 쉬웠다.

궁정화가가 된 고야는 끊임없이 투자 전문가를 만나 자신의 재정을 문제를 상담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지배세력의 변화로 7년 간 추방되는 일을 겪는다. 고야는 상류층으로 진입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후원자를 찾아 그림을 그렸다. 결국 고야의 뜻대로 다시 궁정에 입성한다.

고야는 축적된 재산으로 온갖 정치적 격변들 속에서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재산을 이용해 정치 로비에 능했던 고야는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지위와 신망을 잃고 싶지 않아 자기 주변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했다.

고야는 40대 중반 이후 앓기 시작한 병 때문에 청각을 잃는다. 그는 병을 앓으면서도 끊임없이 그림을 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가 죽던 해 마지막까지 돈을 아들 이름 구좌로 넘기는 일을 투자 전문가하고 의논할 정도로 경제관념이 뛰어났다.

프란시스코 데 고야(1746~1828)는 궁정화가로서 초상화로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인간 심리와 반군 국주의를 탐구했다. 고야의 초창기 작품은 스페인의 희망을 담기 위해 밝고 경쾌한 그림을 그렸다면 후기 작품은 온갖 사회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다룬 어두운 그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1820~1823년경,  
캔버스에 유채, 146\*83,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1808년 5월 3일〉-1814년, 캔버스에 유채, 268\*347,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교양지로서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세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논문

지방재정·세제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우수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세제활동이나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수필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세제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이야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합기금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6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 02)3274-2027  
Fax : 02)3274-2009  
E-mail : myposse@klfa.or.kr

“지방재정과 지방세”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재정과 지방세

2011년 11월호  
(통권 제 47호)

**발행인** 이상복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편집인** 정재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편집위원** 광채기 | 동국대학교 교수  
김대영 |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규 | 중앙대학교 교수  
손희준 | 청주대학교 교수  
안경봉 | 국민대학교 교수  
유경문 | 서경대학교 교수  
유태현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혁 |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 가나다순)  
최재경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  
변성완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우종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장  
이용철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김영철 |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장  
안병윤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심영택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조규일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행일** 2011년 11월 일  
**디자인·인쇄** 사회문화사 (02-2263-0523)